

『園幸乙卯整理儀軌』 圖式, 그림으로 전하는 효과와 전략*

유재빈**

-
- | | |
|----------------------|--------------------------|
| 1. 머리말 | 3.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식의 회화적 특성 |
| 2.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식의 체제 | 4. 맷음말 |
-

초록: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정조대 유일하게 御定書로 편찬된 의궤이다. 이는 『정리의궤』가 기준 의궤의 제작 관행을 따르지 않고 특별한 체제와 기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전과 구분되는 『정리의궤』의 특징은 의궤가 관리자를 위한 실무적 기능 뿐 아니라 참석자에게 행사의 의의를 전파하는 홍보적인 기능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는 『정리의궤』의 편집과 출간방식- 행사의 전모를 종합하고 재구성하였으며, 활자로 대량 인쇄되어 배포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정리의궤』의 圖說은 이러한 의궤의 새로운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궤의 문자 기록은 국왕의 전교에서 시작하여, 연설, 계사, 이문, 내관 등 문서 작성자의 위계나 담당 분과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편집 체계를 상당 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도설은 卷首에 독립되어 본편과는 구별되는 자체적인 편집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의궤 도설의 가장 중심 되는 편집 원리는 도설을 행사와 행차로 나누고, 행사가 '계회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었다. 행사와 관계된 물건과 복식, 공연에 대한 도설은 행사 장면 바로 뒤에 이어서 편집하여, 하나의 행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었다. 기존의 의궤들이 행사에 소용된 물건들을 각각의 담당 부서별로 나누어 편집한 것과는 달리 내용상으로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리의궤』는 관리자보다는 독자의 시각으로, 행사를 재수행하기보다는 행사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리의궤』가 사용한 표현 방식은 행사의 기억에 시각적 사실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 본 원고는 2017년도 <규장각 창립 기념 학술대회- 정조시대 어정서 명찬서의 재조명>에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강한 것이다.

** 홍익대학교 교수.

『정리의궤』에는 평행사선구도, 투시도법, 기술도법 등 새로운 도법이 시도되었다. 이를 새로운 도법은 행사 장면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뿐 아니라, 사용된 물건과 시설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의 의궤의 도설이 의물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쳤다면 『정리의궤』 도설은 실제 사용된 물건과 정확히 부합하고자 하였다. 도설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행사를 재구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리의궤』 도설은 이후 을묘년 원행에 대한 기억을 구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의궤와는 별도로 채색을 입힌 도설이 『정리의궤도』라는 책자로 제작되었다거나, 『정리의궤』를 하사 받은 참가자가 도설에 대한 記文으로 원행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도설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과 의궤 도설의 감상화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핵심어 : 園幸乙卯整理儀軌, 儀軌, 圖式, 圖說, 御定書

1. 머리말

『園幸乙卯整理儀軌』(이하 정리의궤)는 1795년 정조의 화성 원행에 대한 기록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¹⁾ 이러한 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고는 『정리의궤』에 실린 圖式에 주목하고자 한다.²⁾ 『정리의궤』는 『群書標記』(1814)에 수록

1) 정조의 화성 원행은 1795년 윤2월9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을묘년 화성 원행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한영우, 2005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령출판; 유봉학, 2001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김문식, 2015 「을묘년 정조의 수원 행차와 그 의의」, 『정조 8 일간의 수원행차』, 수원화성박물관. 『園幸乙卯整理儀軌』는 원행에서 돌아온 3일 뒤인 윤2월 19일부터 착수되었으나 2년여의 편집과 간행 과정을 거쳐서 1797년 3월 말에야 출간되어 배포되기 시작하였다. 『內閣日曆』, 1795년 윤 2월 19일: 『日省錄』, 정조 21년 3월 24일. 『정리의궤』 문헌 자체에 집중한 연구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육영정, 2008 「한글본『정 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39, 139-168면; 同著, 2015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간행과 인쇄문화적 가치」, 『원행을묘정리의궤』, 수원화성박물관, 1-19면; 김지영, 2015 「1795년 整理通考의 편찬과 ‘整理’의 의미」, 『역사학보』 228, 215-248면.

2) 의궤에 삽입된 판화는 “圖式” 혹은 “圖說”이 모두 통용된다. 일례로 『원행을묘정리의궤』

된 유일한 御定書 의궤이다.³⁾ 이는 『정리의궤』가 正祖(재위 1776-1800)의 특별한 관심과 지휘 아래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제작된 의궤와는 구별된 서적임을 뜻한다. 『원행을묘정리의궤』는 문헌의 체제와 기능, 편찬과 배포에 있어 기존의 의궤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⁴⁾ 정조는 “이번의 경우에는 의궤이면서 동시에 관련사항을 모두 수집하는 類聚의 체제를 취하도록 하고 활자로 인쇄하여 넉넉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라”고 하였다.⁵⁾ 이는 『정리의궤』가 행사 준비를 위해 작성된 기존의 문건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의 재편집을 통해 행사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서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궤로서는 처음으로 활자로 인쇄되었는데 이는 왕실과 관청뿐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분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체제와 배포의 특징은 『정리의궤』가 의궤의 일반적인 기능-왕실의 상징적인 보록이자 차후의 준비를 위한 행정적인 기록을 넘어서 참석자들에게 행사의 의의를 선전하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로 의도되었음을 보여준다.

『정리의궤』에 수록된 도식은 이러한 복합적인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⁶⁾ 『정리의궤』는 도식을 卷首에 독립시켰으며, 거의 한

에는 “도식”으로 『화성성역의궤』에는 “도설”로 표기되었다. 그 의미는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의궤에서 상용 횟수는 “도식”的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예를 따라서 “도식”으로 지칭하겠다.

- 3) 『弘齋全書』 권181, 群書標記3 御定「整理儀軌通編」群書標記의 「정리의궤통편」은 『원행을묘정리의궤』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위의 논문, 222-223면.
- 4) 의궤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김문식, 2010 「『儀軌事目』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과정」, 『규장각』 37, 157-187면.
- 5)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傳敎.
- 6) 을묘년 화성 원행과 관련된 시각들은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1. 『원행을묘정리의궤』 卷首 圖式; 2. 『園幸整理儀軌圖』(국립중앙박물관소장); 3. 《화성원행도》(국립중앙박물관의 8종의 異本); 3. 반차도 2종(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들에 대한 분석은 유재빈, 2016 『정조대 궁중회화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9-371면 참조. 이 외에도 기록상 최소한 2종이 더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지 않는 『整理通考』의 도식과 일부분이 산실된 한글본 『덩니의궤』 도식이다. 『정리통고』에 대해서는 김지영, 앞의 논문, 229면; 『古芸堂筆記』 권5 “整理通考圖說” 참조. 현존하는 한글본 『덩니의궤』는 园幸

책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 권수에 독립시킨 것은 본편은 활자본을 도식은 목판화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작의 편의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식은 본편과 내용의 구성과 순서가 달라서 도식을 본문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독립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즉 도식은 단지 본편에 있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설명하는’ 독립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식의 전략은 독자가 그림을 통해 행사의 현장을 떠올리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게 돋고 있다.

본 논고는 도식의 체제와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정리의궤』에서 도식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도식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도식에 사용된 회화적 화풍에 주목하였는데, 특히 『정리의궤』 제작에 화원 金弘道가 참여하였다는 점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⁷⁾ 이 밖에 도식의 시각 정보를 복식, 공연, 건축 등을 고증하는데 사용한 연구도 적지 않았다.⁸⁾ 본 연구는 『정리의궤』라는 서적에 집중하여 도식이 본편의 내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자와 다른 도식만의 효과와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권1-38)과 城役(권39-48)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준하는 후반부에 『화성성역의궤』와 유사한 도식이 남아 있으므로, 산실된 전반부에 『원행을묘정리의궤』에 해당하는 도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덩니의궤』에 대해서는 옥영정, 2008 앞의 논문: 同著, 2016 「『화성성역의궤』와 『덩니의궤』의 서지적 분석과 비교」, 『진단학보』 127, 159-192면 참조. 『정리의궤』와 관련된 시각물 간의 선후 관계 및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고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 7) 『정리의궤』의 도식에 대한 미술사적인 연구로는 도식의 화풍과 판화사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도식에서 복식과 궁중 무용, 음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 정병모, 1989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板畫史的 研究, 『문화재』 22, 111-152면; 박은순, 2005 「조선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국학연구』 6, 249-308면; 김정임, 20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의궤 도식 목판」, 『古宮文化』 2, 116-142면; 박정혜, 2002 「華城城役儀軌」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93, 413-471면. 김홍도의 『整理儀軌』 참여에 대한 기록은 『日省錄』 정조 19년, 윤2월 28일: 『園幸乙卯整理儀軌』 권2 啓辭 乙卯 윤2월 28일 참조.
- 8) 유송옥, 1986 「儀軌圖의 繪畫史的 特徵과 그에 나타난 宮中服飾」, 『服飾』 10, 5-16면; 김춘연, 1984 「18世紀 宮中飲食考: 園行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2, pp. 77-92 등.

2.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식의 체제

1) 도식의 편집 원리

『정리의궤』는 기존의 편집 체제와 많은 차이를 두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卷首를 두어 擇日, 座目, 圖式을 둑어 편집한 점과 본편이 分방·분소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⁹⁾ 우선 본편에 대해 살펴보자면, 『정리의궤』는 제 1권에 傳敎·御製등의 임금의 글과 명령이 실려 있고, 제 2권에 儀註·節日 등 의식 절차 관련 내용이 실렸으며, 제 3권에 移文·來關 등 관청간 왕래한 문서가 실렸고, 제 4권에는 饌品, 器用, 儀仗, 駕轎, 舟橋 등 행사에 필요한 음식과 물건, 시설이 항목별로 열거되었고, 제 5권에는 참여자의 명단과 경비(財用), 시상 목록(賞典) 등이 수록되었다. 본편 이후에는 4편의 부록이 수록되었는데, 1795년 6월 18일 혜경궁의 회갑잔치(「誕辰慶賀」)와 1796년 1월 21일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이하여 경모궁에 참배한 사실(「景慕宮展拜」), 태조의 아버지인 桓祖의 탄신 8회갑을 맞이하여 영흥본궁에 관리를 보내 작현례를 올린 일(「永興本宮祭享」), 사도세자가 1760년에 온양에 가서 심은 槐木이 1795년 큰 나무로 성장한 것을 기념하여 灵怪臺碑를 세운 사실(「溫宮紀蹟」)이 그것이다.



〈도 1〉『園幸乙卯整理儀軌』 표지와 목차

9) 박정혜, 2000 『궁중기록화연구』, 일지사, 301면.

1권에서 3권까지는 항목과 양이 늘어났지만 기준 의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4권부터는 一房儀軌, 二房儀軌, 三房儀軌로 나누지 않고 사안 별로 나누었다. 이는 정리소가 애초에 분방체제로 나누어 있지 않고 6명의 정리사가 사안 별로 업무를 나누어 맡았던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러나 단지 달라진 정리소의 조직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기존의 의궤는 행사 전반에 대한 토의 과정이나 의례의 의주는 전반에 두었지만, 실무편으로 들어가면 각 房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한 문서와 소용된 물자 목록과 참여한 장인 명단을 방별로 수합해 놓았다. 그에 비해 『정리의궤』는 각 업무를 위해 오고 갔을 모든 문서를 규합하여 제 3권에 移文, 來關, 手本으로 분류해두고 제 4권에는 물건과 시설에 대한 내용만 집중하여 실었다. 그리고 권 5에 행사별로 참석자 명단을 구분하고, 사안별로 시상자 명단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존의 의궤가 방별로 소용된 문서, 명단, 품목 명단을 그대로 독립적으로 실었던 것에 비해, 『정리의궤』는 대대적인 정보의 종합과 재편집을 단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궤가 집행자의 편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행사의 참석자 이자 수혜자였던 독자의 시각을 고려하여 새로운 편집 체제를 고안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분방체제를 벗어나 항목별로 분류한 『정리의궤』의 구성은 이후 진연의궤로 계승되었다.¹⁰⁾ 순조9(1809)년 『己巳進表裏進饌儀軌』부터 마지막 진연의궤인 광무6년(1902) 『壬寅進宴儀軌』에 이르기까지 19세기의 진연의궤는 모두 『정리의궤』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사안에 따라 항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卷首에 택일, 좌목, 도식을 배치하고, 전반부(권1)에 의결 문서와 의주를, 후반부(권2 이하)에 소용된 음식과 물건, 참여자 명단 등을 포함시키는 구성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한편 『정리의궤』 4년 이후 정조24(1800)년에 제작된 『(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는 여전히 一·二·三方 구성을 포함하였는데, 진연 계통이외의 의궤에서는 여전히 분방체제를 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리의궤』가 진연 의궤 안에서 하나

10) 김종수, 2003 「奎章閣 所藏 연향 관련 儀軌 고찰」, 『한국학보』 29, 56-92면; 同著, 1999 「장서각 소장 조선시대 궁중 연향악 문헌」, 『장서각』 1, 79-117면. 김종수는 연향관련 의궤의 체제를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179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다.

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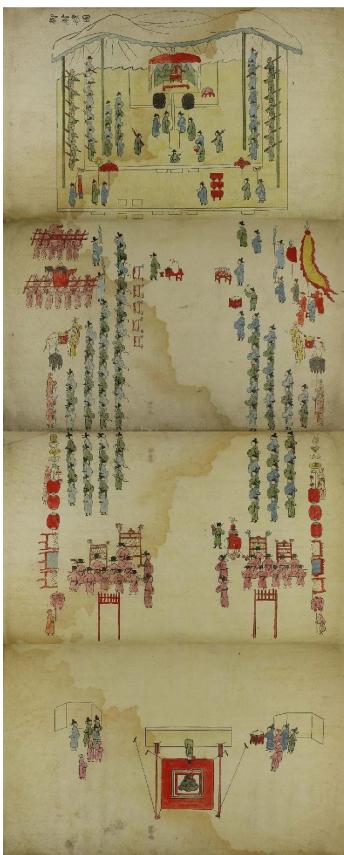
『정리의궤』 도식의 편집 방식과 순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도 1). 도식은 본편이 시작하기 전에 권수에 택일, 좌목에 이어 ‘圖式’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었다. 이처럼 도식편을 별도의 책자로 뚫은 방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國朝五禮儀』에 「序例」를 따로 두고 排班圖, 饋設圖의 도식과 제기, 깃발, 복식 등의 물건의 견양을 실은 예가 있다. 『국조오례의』 이후 전례서에 도식을 실은 예는 숙종의 『宗廟儀軌』(1706), 영조대의 『國朝喪禮補編』(1758)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國朝五禮儀序例』에 근거하였지만 도식을 마지막이 아닌 권수에 실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 두 책의 도식은 각각 정조의 『景慕宮儀軌』와 『顯隆園園所都監儀軌』의 도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출판 경험이 6년 뒤 『정리의궤』의 도식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¹¹⁾

한편 『정리의궤』는 일반적으로 의궤에 포함되던 官衙圖나 器物圖 뿐만 아니라 行事圖를 실었다는 점에서 영조19년(1743)의 『大射禮儀軌』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¹²⁾ 『대사례의궤』는 행사도를 실은 가장 이른 예로서, 역시 권수에 〈御射圖〉, 〈侍射圖〉, 〈侍射官賞罰圖〉 3장면의 채색 도식을 실었다(도 2). 첫 장면 〈어사도〉는 『국조속오례의』 「서례」의 문자 배반도, 〈大射圖〉를 그림으로 시각화한 것이며(도 3),¹³⁾ 이들 3장면을 더 정교하고 상세하게 그려 비단에 옮긴 것이 《大射禮圖券》이다(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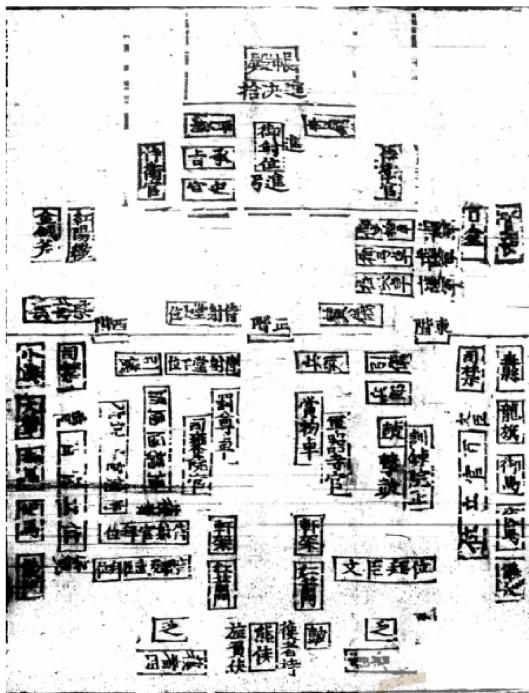
11) 이현진, 2013 「장현세자의 사당, 경모궁」, 『경모궁의궤』, 한국고전번역원, 26-47면; 유재빈, 2017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지도: 정조의 사도세자 추승 작업과 事蹟圖」, 『미술사학연구』 33, 73-84면.

12) 『大射禮儀軌』(奎 14941). 『대사례의궤』에 대해서는 신병주, 2002 「英祖代 大射禮의 실시와 『大射禮儀軌』」, 『한국학보』 28, 61-90면; 심승구, 2009 「朝鮮時代 大射禮의 設行과 政治·社會的 意味: 1743년(영조 19) 大射禮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2, 277-311면; 박정혜, 2000 앞의 책, 249-257면.

13) 『國朝續五禮儀序例』 軍禮, 〈大射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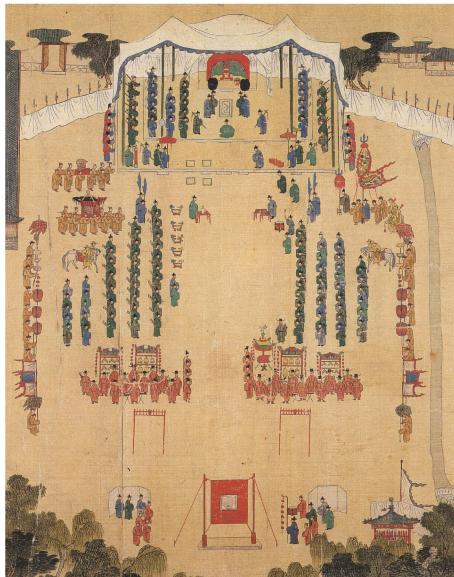
〈左 2〉 大射禮儀軌(彔14941),
1743년, 〈御射圖〉



〈左 3〉『國朝續五禮儀 序例』軍禮，
〈大射圖〉

이는 의식 순서를 글로 옮긴 ‘의주’, 참석자와 물건의 위치를 문자로 표시한 ‘문자 배반도’, 문자 배반도를 그림으로 옮긴 ‘의궤도’, 그리고 의궤도를 채색하여 비단에 그린 ‘궁중행사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다음에 살펴볼 원행 반차도와 『정리의궤』, 《화성원행도병》의 관계를 살피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대사례의궤』는 3점의 행사도 이외에도 행사에 사용된 각종 물품의 채색도식도 실었다. 이 도식은 권수가 아닌 物目秩에 설명과 함께 삽입되었다.¹⁴⁾ 그에

비해 『정리의궤』는 관아도와 행사도, 기물도와 반차도를 모두 모아서 권수에 싣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도 4〉《大射禮圖券》중 〈御射圖〉, 1743년,
견본채색, 전체 60×282cm 중 60×46.9cm,
고려대학교박물관.



〈도 5〉『整理儀軌』〈華城行宮圖〉

이처럼 『정리의궤』 도식이 권수에 독립된 것은 우선 제작의 편의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림과 글씨 모두 필사한 이전의 의궤와 달리 『정리의궤』는 도식은 목판화로, 글자는 금속활자로 출간하였다. 이 때문에 본문 중간에 그림을 삽입하는 대신, 도식을 활자 부분과 독립시켰을 가능성도 크다.¹⁵⁾ 그러나 도식의 체제를 살펴

14) 『大射禮儀軌』物目秩. 卷頭의 목록에는 物目秩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大射禮時所用諸具로 명명되어 있다.

15) 현재 『園幸乙卯整理儀軌』의 목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쇄된 정황으로 미루어 그림이 새겨진 목판이 책의 외곽틀, ㄦ里 안에 삽입된 형태로 조판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는 『원행을묘정리의궤』 권수 주교도의 부분처럼 도판 인출면이 匡郭과 일정 간격

보면 본편의 체제와 일치 하지 않고 그 자체의 편집 원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식이 단지 제작상의 문제만으로 앞에 몰아 둔 것이 아니라, 도식이 본편과는 구별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수에 독립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측은 도식의 순서를 본편의 체제와 비교함으로써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수록된 도식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도식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1). 도식은 가장 앞에 〈華城行宮圖〉를 두었다(도 5). 이처럼 첫 장에 건물도를 삽입하는 것은 주로 건물이 의궤의 주제를 상징하거나 건축물의 建營과 관련된 의궤에 볼 수 있는 관례이다.¹⁶⁾ 즉 『宗廟儀軌』, 『社稷壇儀軌』, 『경모궁의궤』와 같은 의궤에서 종묘, 사직단, 경모궁 전도는 각 제의가 벌어지는 장소이자 의례의 대상을 상징한다. 『정리의궤』는 제의나 영건과 관련된 의궤가 아니지만, ‘화성행궁’을 원행의 목적지이자 행사가 일어난 장소로서 제일 첫 장에 싣고 있다.

그 이후에는 〈奉壽堂進饌圖〉가 이어진다(도 6). 그러나 다음 행사도인 〈落南軒養老宴圖〉가 등장하기 전에 呈才圖(도 22), 綵華圖(도 17), 器用圖(도 18), 服飾圖(도 21)가 삽입되었다. 14편의 呈才是 진찬에 실행하였던 것이며, 복식은 춤을 추었던 女伶과 童妓의 복식이고, 채화와 그릇은 모두 잔치에 사용되었던 것들이다. 다시 말해 모두 봉수당 진찬 의식에 속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낙남헌양로연도〉(도 7), 〈謁聖圖〉(도 8), 〈放榜圖〉(도 9), 〈西將臺城操圖〉(도 10), 〈得中亭御謝圖〉(도 11), 〈新豐樓賜米圖〉(도 12) 등의 행사도가 나열되었다. 혜경궁의 가마에 대한 자세한 도식 〈駕轎圖〉(도 25)와 배다리가 설치된 모습을 그린 〈舟橋圖〉(도 23), 그리고 63면의 〈班次圖〉가 이어졌는데, 모두 오고 가는 행차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延禧堂進饌圖〉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판의 제목은 별도의 조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의궤 도식의 조판에 대해서는 옥영정, 2015 앞의 논문, 15-16면; 김정임, 2008 앞의 논문, 126면.

16) 길례 관련 전례서에서 제의 공간의 전도를 제시하는 것은 국조오례서례의 「單廟圖說」에서 그 첫 사례를 볼 수 있다. 이후 『종묘의궤』, 『사직서의궤』, 『경모궁의궤』에서 이 사례가 지속되었다. 19세기의 영건의궤들은 대부분 첫 장에 전도를 싣고 있다. 영건의궤에 대해서는 김동우, 2010 『영건의궤: 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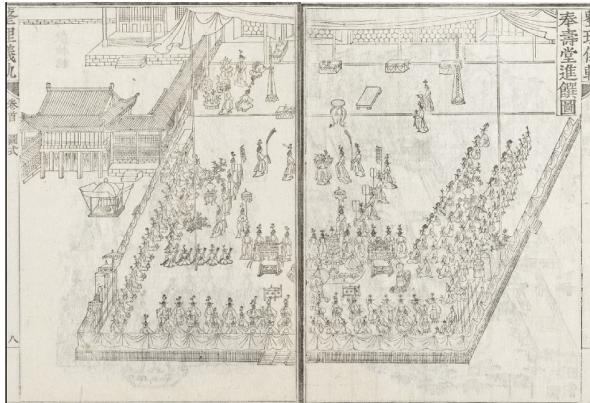
〈弘化門賜米圖〉는 8일간 화성 체류시에 벌어진 행사가 아니다. 1795년 6월 18일 연희당에서 거행한 혜경궁의 회갑 잔치(도 13)와 이어서 회갑을 기념하여 홍화문 앞에서 미곡을 나누어 준 일을 그린 것이다(도 14). 이들은 장소와 시간이 앞의 일과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행사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첨부한 듯하다.

결과적으로 『정리의궤』의 구성은 행사도, 기물도, 정재도 등 도식 형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행사별로 분류한 것이다. 혜경궁 진찬과 관련하여 봉수당 잔치 장면(봉수당진찬도)과 설행된 춤(정재도), 배설된 그릇(기용도), 사용된 복식(복식도)을 이어서 배치하는 한편, 가마 도식은 행차와 관련해서 반차도, 주교도 등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1〉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도식(음영부분은 행사도)

	제목	종류
1a	華城行宮圖	
2a~b	奉壽堂進饌圖	
3a	(呈才)	獻仙桃
3b		夢金尺
4a		荷皇恩
4b		拋毬樂
5a		舞鼓
5b		牙拍
6a		響鉦
6b		鶴舞
7a		蓮花臺
7b		壽延長
8a		處容舞
8b		尖袖舞
9a		船遊樂
9b		劍舞
10a	彩花圖	御簪絲圈花 百官以下軍兵等 首拱花
10b		樽花
11a		床花
11b		

12a		(建花 吳 間花)
12b	器用圖	(床)
13a		(瓶・樽・盃)
13b		(燭・燭臺)
14a	服飾圖	女伶服飾
14b		童妓服飾
15a	洛南軒養老宴圖	
15b	謁聖圖	
16a	放榜圖	
16b	西將臺城操圖	
17a	得中亭御謝圖	
17b	新豐樓賜米圖	
18a～ 22b	駕轎圖	駕轎全圖, 分圖, 左右・, 後面圖 等
23a		有屋轎
24a～b	舟橋圖	
25a～56a	班次圖	
56b	延禧堂進饌圖	
57b	弘化門賜米圖	



〈左 6〉『整理儀軌』〈奉壽堂進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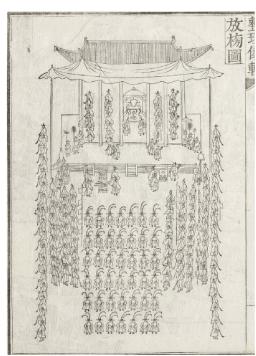
〈左 22〉『整理儀軌』
〈船遊樂〉



(도 7) 『整理儀軌』
〈落南軒養老宴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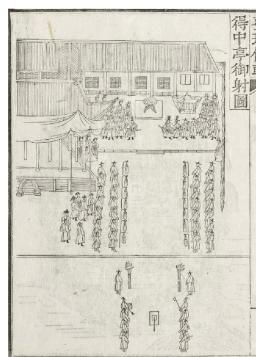
(도 8) 『整理儀軌』
〈謁聖圖〉



(도 9) 『整理儀軌』
〈放榜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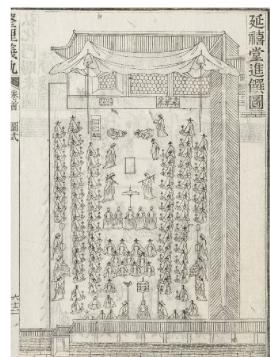
(도 10) 『整理儀軌』
〈西將臺城操圖〉



(도 11) 『整理儀軌』
〈得中亭御謝圖〉



(도 12) 『整理儀軌』
〈新豐樓賜米圖〉



(도 13) 『整理儀軌』
〈延禧堂進饌圖〉



(도 14) 『整理儀軌』
〈弘化門賜米圖〉

〈표 2〉 1795년 원행의 행사의 계획과 실제, 『정리의궤』 도식의 행사도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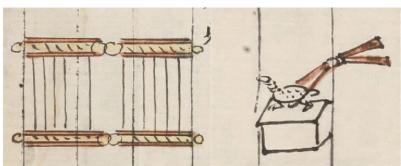
계획	진찬연	양로연	성묘전배	과거·방방	성조·야조		사미연	주교환궁	진찬연	사미연
실제	성묘전배 (윤2/11)	과거· 방방 (윤2/11)	성조· 야조 (윤2/12)	진찬연 (윤2/13)	양로연 (윤2/14)	어사례 (윤2/14)	사미연 (윤2/14)	주교환궁 (윤2/16)	진찬연 (6/18)	사미연 (6/18)
도식	봉수당 진찬도	낙남한 양로연도	알성도	방방도	서장대 야조도	득중정 어사도	신풍루 사미도	주교도	연희당 진찬도	홍화문 사미도

행사도의 순서(도 6~14)를 열거하면 흥미롭게도 실제 거행 순서와 다름을 알 수 있다(표 2). 그렇다면 의궤 도식은 왜 실제 실행의 순서와 다르게 구성되었을까? 도식에서 따르고 있는 행사의 순서는 정조가 본래 의도하였던 순서이다. 정조는 화성으로 출발하기 한 달 전에 직접 행사의 순서와 의례들을 결정하였다.¹⁷⁾ 이 때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화성에 도착한 다음날, 첫 행사로 어머니를 모시고 현릉원에 참배하며, 그 다음 날 진찬연을 열기로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틀간의 여행 끝에 화성에 다다르니 어머니가 무척 피로하였다. 특히 둘째 날에는 비도 많이 내려서 나이 많은 어머니로서는 힘든 여정이 되었다. 정조는 화성에 도착한 날 저녁에 어머니를 위해 일정을 재조정하였다. 어머니가 참석해야 하는 행사들- 현릉원 참배와 진찬의를 다음 날로 미루고, 뒤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앞에 당겨서 한 것이다.¹⁸⁾ 실제 행사는 어머니의 건강과 날씨로 인해 조정될 수밖에 없었지만,

17) 『園幸乙卯整理儀軌』 권2 啓辭 윤 2월 1일. 1일차: 궁궐 출발→노량진 휴식과 점심→시흥 행궁 숙박, 2일차: 사근평 휴식과 점심→화성행궁 도착, 3일차: 현릉원 참배, 4일차: 경궁 진찬연, 5일차: 문무과 시험, 6일차: 사근평 휴식과 점심→시흥행궁 숙박, 7일차: 환궁. 원행 며칠 전 행사 순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때에도 같은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원행을묘정리의궤』 권1 전교 윤2월 1일. “初九日陪慈宮, 詣顯隆園展謁, 至華城行宮, 進饌于慈宮, 仍行養老宴. 上詣聖廟, 拜于先聖, 還至行宮, 設科取人, 翌日登將臺, 親閱城操夜操, 犕餉將士, 當於十六日還宮, 令整理所知悉.”

18) 『園幸乙卯整理儀軌』 권1 傳敎 윤 2월 10일. 행사의 순서가 본래 계획과 변경되었음을 김문식, 2011 「1795년 정조의 화성 행차와 그 기록」, 『화성능행도병』, 용인대학교박물관, 103면에서 처음 밝혔다. 민길홍은 이를 다수의 화성원행도병 순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민길홍, 2015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와 『화성원행도병』 제작 양상」, 『정조』, 8일간

의궤 도식에서는 정조가 본래 의도한 순서를 따라서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궤 본편의 기록들은 날짜순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정조의 의도를 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도식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준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봉수당 친찬을 원행의 의미 안에서 가장 앞에 두고 싶은 정조의 의도를 살릴 수가 있었다.



〈도 15〉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1627)

竹冊·玉印



〈도 16〉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1638)

王妃 翟衣 일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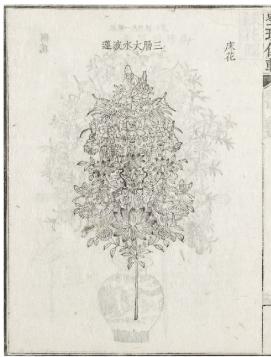
결국 의궤 도식의 가장 중심 되는 편집 원리는 도식을 행차와 행차로 나누고, 행사가 '계획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련의 행사와 관계된 내용별로 구분하였다. 이는 행사에 사용된 기물 도식이 그 물건을 제작하거나 준비한 부서별로 나누어 표기한 기준의 구성과는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1627)에서 竹冊과 玉印에 대한 그림은 이를 담당한 三房儀軌에 수록되었으며(도 15),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1638)에서 왕비의 翟衣는 의습을 담당한 一房儀軌에 수록되었다(도 16). 가례도감의궤에서 가마는 일방의궤에 반차도는 일방의궤 혹은 마지막에 수록되었던 것과 달리, 『정리의궤』에서는 가마, 주교, 반차도를 모두 행차의 일환으로 도식의 후반부에 수록하였다. 이처럼 『정리의궤』는 관리자보다는 독자의 시각으로, 행사를 재수행하기보다는 행사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리의궤』가 의궤로서는 처음으로 인쇄 출간되었으며, 관청뿐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다량 배포된 사실과 연관이 있다. 『정리의궤』가 단지 국가 행사를 기록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의 의미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의 수원행차』, 수원화성박물관, 292-295면.

2) 도식과 본편의 내용 비교- 기물 도식을 중심으로

도식은 본편과 체제를 달리하기 때문에 본편의 내용을 그대로 도식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특히 행사 장면이나 행차와 관련된 가마, 주교, 반차도는 어떤 한 구절이 아니라 내용을 종합하여 형상화한 것에 가깝다. 그에 비해 器物을 그린 도식은 도식의 物名이 본문의 설명과 대칭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연결이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물도라고 해서 본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니다. 본편의 구성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있기도 하고, 많은 기물 중에 극히 일부만이 채택되어 그려져 있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기물 도식- <채화도>, <기용도>, <복식도>를 중심으로 도식과 본편의 내용을 비교해보겠다.

<채화도>는 봉수당 진찬에 사용된 꽃을 종류별로 그린 도식이다. 머리에 꽂는 簪花, 상차림으로 쓰는 床花, 행사장 공간을 꾸미는 樽花를 각각 임금과 신하의 신분별로 구분하여 그렸다. 여기에 그려진 채화에 대한 설명은 본문 券四 ‘饌品’ 중의 부록인 菜花에 수록되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한 상차림 대신 부록에 불과한 채화를 채택하여 그런 점이 특이하다. 채화를 그린 사례는 이전에도 찾아 볼 수 없어 왜 채화도를 도식으로 남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문의 설명을 보면 요리의 경우 생김새보다는 재료의 수량에 대해 서술하는데 비해 채화는 그 모양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화 중에 가장 화려한 ‘大水波蓮’은 “밀랍을 사용하여 연꽃과 연잎을 만드는데, 잎과 잎 사이에는 月桂(월계화)와 紅桃(붉은 복사꽃)와 碧桃(흰 복사꽃)를 끼워 넣고, 仙童 10인이 금·은 술잔을 받들고 있으며, 금·은 술잔에는 南極 老人이 있고, 여기에는 太平 歲月, 壽富多男이라고 하는 8개의 금자를 새겼다. 이것은 대찬탁에 꽂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도식의 ‘三層大水波蓮’이 이에 해당되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꽃들과 선동, 남극노인 외에 나비와 새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실물에 기초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도 17). 본문에서 최대한 묘사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그 화려함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을 때 도식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도 17〉『整理儀軌』
〈菜花〉 중 “三層大水波蓮”

〈기용도〉는 봉수당 진찬에 사용된 기물을 그린 것이다. 이는 『정리의궤』 권4, 「器用」과 「排設」에 해당되는데 본편의 내용에 비해 도식은 양이 턱없이 적다. 예를 들어 도식 「기용도」에는 탁자와 주전자, 잔, 촛대 이 4가지 품목만이 종류별로 모두 13점 그려졌다(도 18). 그에 비해 본편의 「기용」에는 도식의 품목 뿐 아니라, 반상, 시저, 쟁반, 합 등 식사를 위한 반상 용기, 국자, 칼, 집게 등의 조리 도구, 수건, 회장, 보자기, 방석, 뜻자리 등의 직물 소품 등이 모두 100여종 이상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도식에 그려진 4가지 품목은 어떠한 기준에서 선택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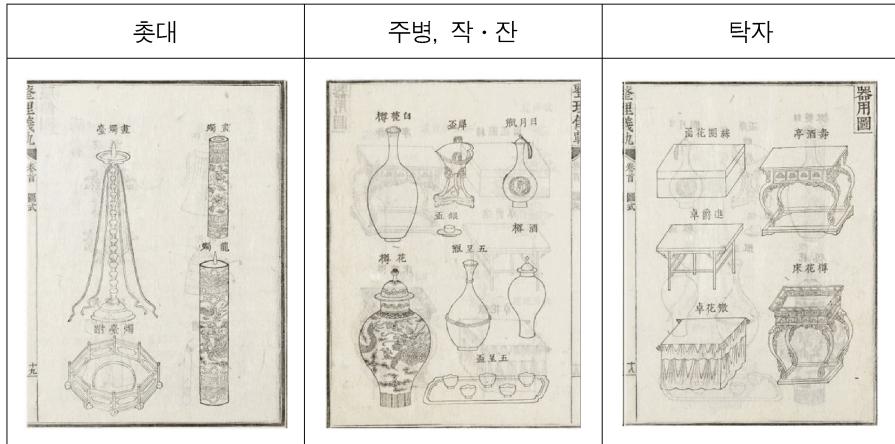
『정리의궤』 도식에 채택된 기용의 기준은 추축컨대 『국조오례의서례』(이하 서례)에서 그려진 항목이다.¹⁹⁾ 연향에 대한 의궤는 숙종과 영조대에도 제작되었다.²⁰⁾ 그러나 연향 의궤 가운데 도식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²¹⁾ 따라서 『정리의

19) 『속오례의』와 『속오례의보』의序例는 왕세자와 왕세손의 관복과 배반도가 일부 추가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도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20) 을묘년 이전의 연향관련 의궤로는 3점이 현존한다. 숙종과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는 『(己亥)進宴儀軌』(1719년)과 『(甲子)進宴儀軌』(1744년), 그리고 영조의 즉위 40주년을 축하하는 『(乙酉)受爵儀軌』(1765년)가 있다. 김종수, 2005 「규장각 소장 연향 관련儀軌 고찰」,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23면.

21) 五禮 중 嘉禮 항목에서 왕실 혼인과 관련된 嘉禮都監 의궤류는 이미 17세기부터 간단한 기물도와 반차도를 수록하였으나, 연향 관련 의궤류는 『園幸乙卯整理儀軌』 이전에는 도

궤』는 도식의 모본으로 기존의 연향의궤를 삼을 수 없었고 대신 전례서의 기본인 『서례』의 「가례」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의궤』의 기용도는 『서례』「가례」편의 “尊爵圖說”에 해당한다(도 19). “준작도식”에는 술을 놓는 탁자인 酒亭 2좌, 술병 8종, 잔 7종이 그려있다. 『정리의궤』「기용」 도식을 “준작도식”과 비교하면 탁자의 경우 5좌가 그려졌는데, 술을 놓는 곳(壽酒亭, 進爵卓) 뿐 아니라, 꽃을 놓는 곳(絲圈花函, 樽花床, 散花卓)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다르다(도 18). 이는 『정리의궤』에 채화에 대한 조항이 특별히 추가된 사실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술병과 술잔에 관련된 종류는 도식이 오히려 줄었다. 『서례』에 8종의 술병과 7종의 술잔이 그려졌다면, 『정리의궤』에는 5종의 술병과 3종의 잔이 그려졌을 뿐이다. 『정리의궤』 본편의 자료에 의거하면 술병과 술잔의 종류는 이전시기에 비해 간소화되고, 신분의 차별은 주로 銀器-鎰器-砂器 등 그릇의 재료로 구분하였는데, 도식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리의궤』의 도식은 『서례』의 준작도식을 참고하되 해당 품목을 1795년 진찬에서 실제 사용된 그릇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 18〉『國朝五禮序例』「嘉禮」“尊爵圖說”

식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이후에는 도식이 반드시 포함되었다.

작·잔	주병	탁자

〈도 19〉『國朝五禮序例』「嘉禮」“尊爵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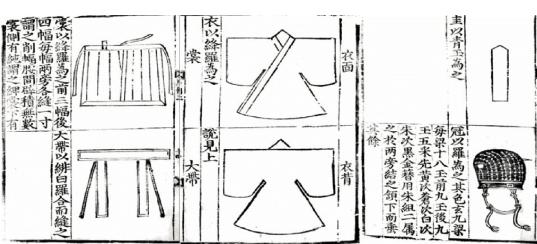
『정리의궤』의 「기용도」가 『서례』에 기반하되 그 구체적인 모습은 현실화한 것이라면, 「복식도」는 『서례』나 기존 의궤의 경우와 배치되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례』에서 복식은 “遠遊冠服” 즉 신하들의 賀禮를 받을 때 착용하는 국왕의 복식 그림이 포함되었다(도 20).²²⁾ 기존의 도감의궤 중에는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1638)에 왕비의 翟衣 일체가 그려졌다(도 16).²³⁾ 그에 비해 『정리의궤』에는 왕과 왕비의 복식이 아닌 춤추는 舞女, 女伶의 복식과 어린 기녀인 童妓의 복식이 그려져 있다(도 21). 『정리의궤』에서 이들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서 권5, 「工伶」편에 언급되었다. 黃綃單衫에 紅綃裳을 입고 繡帶와 汗衫을 착용하는 ‘여령 복식’은 대다수의 무녀가 입는 복식이며, 黃紅薔薇를 꽂은 蛤笠을 쓰고 丹衣에 紅綃襪裙, 紅羅裳을 입고, 流蘇, 金花羅帶를 늘어뜨리는 ‘동기복식’은 연화대를 추는 어린 기녀의 복식이다.²⁴⁾ 이처럼 의궤의 도식에 왕과 왕비의 복식이 아닌 여령, 동

22) 『國朝五禮儀序例』嘉禮 “遠遊冠服圖說”

23)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 一房儀軌

24) 『園幸乙卯整理儀軌』 권5 工伶 “女伶載花冠 着黃綃單衫, 紅綃裳, 黑綵金縷繡帶, 繫五彩汗衫, 蓮花臺呈才時, 童妓戴蛤笠, 着丹衣紅綃襪裙, 紅羅裳, 金花羅帶, 插黃紅薔薇一朵垂流蘇.” 이외에 정재악장에도 무녀의 복식이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蓮花臺’를 추는 무녀가 “합립(蛤笠)을 쓰고 붉은 옷(丹衣)을 착용하였다”거나 ‘鶴舞’를 추는 무녀가 “푸른 날개옷과 흰 날개옷을 입고” 하므로 변장하였다는 구절이다. 『원행을묘정리의궤』

기의 복식이 포함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이는 재화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식적이고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기물을 채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도 20〉『國朝五禮序例』「嘉禮」
“遠遊冠服圖說”



〈도 21〉『整理儀軌』「服飾圖」 -
女伶服飾, 童伎服飾

3. 『원행을묘정리의궤』 도식의 회화적 특성

1) 시점과 구도

『정리의궤』는 다양한 장르의 도식을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평행사선구도, 투시도법, 기술도법 등의 도법을 사용한 것이다.²⁵⁾ 평행사선구도는 〈화성행궁도〉와 〈봉수당진찬도〉에 사용되었으며, 투시도법은 〈주교도〉에, 기술도법은 〈가교도〉에 사용되었다. 우선 〈봉수당진찬도〉를 먼저 살펴보면, 평행사선구도는 평행의 사선을 축으로 비스듬히 부감하는 도법이다(도 6). 공간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으나, 소실점을 향해

권1 樂章 > 呈才樂章 > 蓮花臺, “載蛤笠著丹衣”; 같은 책, 권1 樂章 > 呈才樂章 > 鶴舞, “青白羽衣之雨女妓.”

25) ‘기술도법’의 개념은 정형민 · 김영식, 2007 『조선후기의 기술도: 서양과학의 도입과 미술의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3면: 97-143면.

서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기하학적 원근법과 달리 원경과 근경의 대소가 없이 모두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미 16세기에 전각과 내부의 인물을 드러낼 때는 종종 사용되었으나 행사도에서 자주 발견되는 방식이 아니며, 특히 왕이 친립한 행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²⁶⁾ 중앙 상단에 임금의 자리를 배치하고 좌우대칭적인 구도를 이루는 것이 친립행사의 도식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한 행사도가 드물기 때문에 〈화성행궁도〉나 〈주교도〉보다 〈봉수당진찬도〉의 경우가 더 특별하게 주목된다. 〈봉수당진찬도〉는 국왕이 친립한 행사로는 처음으로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하였다.²⁷⁾ 〈봉수당진찬도〉는 두 면을 모두 사용하여 가로 길이를 넓히면서 적극적으로 평행사선구도의 원근감을 사용하였다. 〈낙남현양로연도〉를 비롯하여 『정리의궤』의 다른 행사도에는 사용하지 않은 이 도법을 이 장면에서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도법은 참석자의 위치를 표시한 문자 배반도를 그림으로 옮긴 결과이다.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할 경우, 중심 축이 사선으로 벗겨있어, 문자 배반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의한 위계적 도열이 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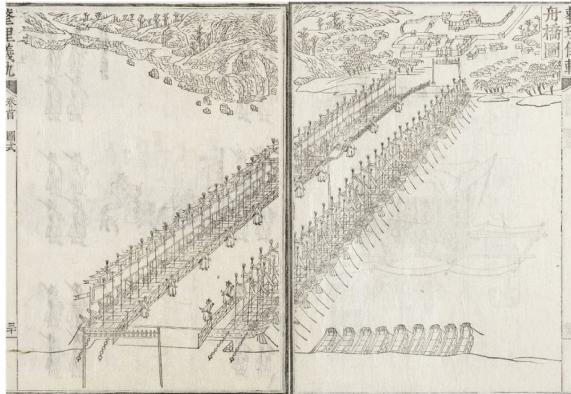
그렇다면 의례의 구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도식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봉수당진찬도〉는 사실 하나의 장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에 따라오는 獻仙桃 이하 14장면의 정재가 모두 봉수당 안에서 베풀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26) 평행사선구도는 ‘평행원근법’ 혹은 ‘평행투시도법’이라고도 칭한다. 16세기와 18세기의 평행원근법에 대해서는 박정혜, 2000 앞의 책, 113-117면; 291면; 309면. 〈中廟朝書筵官賜宴圖〉(1535), 〈謁聖試恩榮宴圖〉(1580), 《濬川契帖》(1760)의 〈鍊戎臺賜宴圖〉가 평행투시도법을 사용한 예이다. 모두 국왕이 친립하지 않은 예이다. 특히 《준친계첩》의 경우는 다른첩이 모두 좌우대칭구도에 중앙으로 갈수록 비스듬히 좁아지는 원근법을 사용하는 데 비해 국왕이 친립하지 않은 〈연융대사연도〉는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한 점이 주목할만하다.

27) 건물도에서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하는 것은 16세기에도 발견되지만, 〈화성행궁도〉는 의궤의 관아도로는 처음으로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했다. 『중묘의궤』, 『사직서의궤』, 『경모궁의궤』 등 모두 평면적인 건물도를 사용하였다. 한편 〈봉수당진찬도〉는 국왕이 친립한 행사이나, 혜경궁에게 양보하고 어좌가 중앙에 자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비대칭적인 구도를 사용하는 부담을 줄여주었을 것이다.

볼 때 〈봉수당진찬도〉의 공간에 14개의 정재를 번갈아 넣어가면서 보아야 한다(도 6과 도 22 비교). 14개의 정재가 배경 없이 표현된 덕분에 무용수의 대열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봉수당진찬도〉는 평행사선구도로 인해 공간감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이 14개의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정리의궤』의 〈봉수당진찬도〉를 《화성원행도》의 같은 장면과 비교해보아도 잘 드러난다. 《화성원행도》의 〈봉수당진찬도〉는 평면도법을 사용하였다. 첫 장면인 헌선도 정재를 그려 넣은 『정리의궤』 도식과 달리 《화성원행도》에는 총 4 종의 정재를 동시에 그려 넣었다. 즉 《화성원행도》의 〈봉수당진찬도〉는 다른 행사도와 통일성을 가지고, 의례와 다양한 정재의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평면도법을 고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에 비해 『정리의궤』는 14개의 정재를 번갈아 넣어 상상할 수 있는 무대로 기능하기 위해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도 23〉『整理儀軌』〈舟橋圖〉



〈도 24〉《華城園幸圖》

〈漢江舟橋還御圖〉

〈주교도〉에는 투시도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도 23). 〈주교도〉는 두 면을 이어 가로로 넓은 화면을 확보한 후, 화면의 중앙에 주교를 대각선으로 길게 배치하였는데, 다리의 폭이 원경으로 떨어질수록 좁아지며 다리 사이의 간격도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춤춤해짐을 볼 수 있다. 〈주교도〉의 이러한 원근감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서양의 1점 투시원근법을 구현한 예로 주목받아왔다. 물론 〈주교도〉의 원근법이 서양의 1점 투시원근법의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전부터 궁중에서 사용되던 평행사선 원근법과는 다른 새로운 경향임은 틀림없다. 투시도법의 사용은 주교에 현장감을 더할 뿐 아니라, 주교에 대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을 부가하고 있다.

이는 《화성원행도》의 〈한강주교환어도〉(도 24)가 주교를 건너는 어가행렬을 담은 데 비해 『정리의궤』의 〈주교도〉는 주교가 설치된 장면만을 도해한 사실과 관련지어볼 수 있다. 『정리의궤』안에서 〈주교도〉의 배치를 보면 다른 행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혜경궁의 가마를 그린 〈가교도〉의 뒤에 삽입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주교도〉가 그려진 맥락이 행사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가교도〉가 가마의 제작을 위한 설계도이듯 주교의 설치를 위한 도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²⁸⁾

〈주교도〉에는 주교에 실제 투입된 대로 정확히 36개의 배가 늘어서 있다. 이들은 그 연결하여 완성된 전체적인 모습이 투시원근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현된 한편, 연결되지 않은 배들은 위에서 본 立面圖로 그려져 오른쪽 앞에 배치되었다(도 23). 이처럼 실제와 부합하는 정확한 수치, 원근감과 입체감이 살아있는 화법, 정면, 측면 등의 다양한 시점은 「가교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기술도의 형식이다. 기술도 도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8) 『園幸乙卯整理儀軌』의 도식 〈주교도〉는 의궤 권4의 舟橋 항목을 위한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技術圖 도법

25-1. 駕轎全圖	25-2. 駕轎分圖- 前圖	25-3. 左右 外門	
25-4. 隔貼	25-5. 前面 '亥'圖	25-6. 前面 '午'圖	25-7. 後面'巳'圖 · '辛'圖

〈도 25〉『整理儀軌』〈駕轎圖〉部分

의궤 「가교도」의 도식을 살펴보면 기존 의궤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도법으로 그

려졌다 완성된 가마 그림 하나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마치 기계의 설계도처럼 복잡한 여러 장의 도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선에 유래된 기계에 관한 도식과 유사한 형식 몇 가지를 공유한다. 그 첫 번째가 다각적인 조망이다. 가마는 대각선에서 입체적으로 한 번 조명된 후(도 25-1), 다시 앞, 뒤, 옆면 등이 평면적으로 제시되었다(도 25-2).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가마의 모양 뿐 아니라 각 면의 장식도 온전히 보여질 수 있다.

둘째로 전체도와 부분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가마의 전체 모습, 그 다음에는 전·후·좌우면을 제시하고, 이어서 각 부분을 나열하였다. 각 부분은 가마의 투각된 장식면이거나 부착된 부품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장식문 양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각각의 부품이 몇 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들어서 여는 가마의 외문도 별도로 그려 넣었고(도 25-3), 외문을 여닫는 隔貼, 그리고 문을 열어 꾀어 놓는 銚도 포함시켰다(도 25-4). 가마에 들채를 끼워 넣는 부분은 확대하여 측면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 넣었다(도 25-5). 이처럼 안쪽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부품이거나 복잡한 구조를 가진 부품의 세부를 포함시킴으로써 가마의 형태와 작동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로 각 부분을 十干과 十二支로 표기하였다는 점이다. 이 표기는 세부 부품을 독립적으로 다시 그릴 때 전체 중에 이 부품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前面午圖二片’이라는 부분도(도 25-6)는 ‘前面’의 ‘午’자점에 해당하는 부품임을 알 수 있다(도 25-2). 가마를 구성하는 데에는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판이 많았는데, 그 세부 문양은 종류별로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後面’의 ‘巳’부분과 ‘辛’부분은 같은 문양 구조인데 그 세부를 보면 각각 봉황과 박쥐 문양임을 알 수 있다(도 25-7). 표기를 함으로써 이 조각들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혼동 없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당시 조선에 전래된 기술서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²⁹⁾ 그 중에서 『泰西水法』(1612)의 도식과 비교하면 많은 유사점과 함께 차

29) 『화성성역의궤』의 도식이 가지는 혁신성은 일찍이 중국의 『奇器圖說』(1627)이나 『武備誌』(1621) 등의 판화와 연결되어 설명되어 왔다. 『화성성역의궤』에 『무비지』가 언급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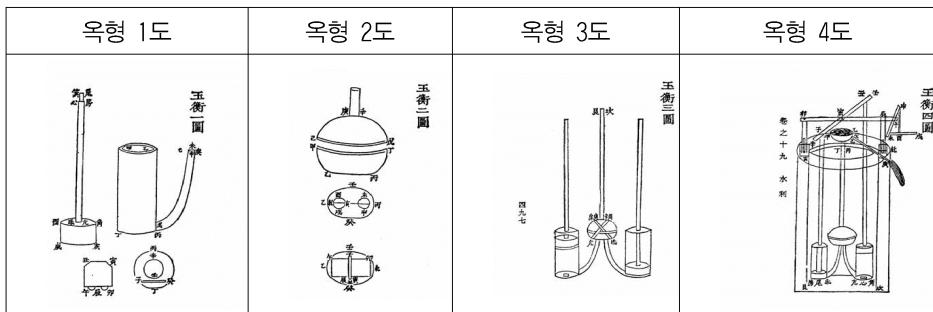
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³⁰⁾ 『태서수법』은 관개시설에 관한 서적으로 18세기 조선에 전래되어 水車 제작에 영향을 준 서적이다.³¹⁾ 이 책 안에 포함된 ‘玉衡’이라는 수차의 도식을 보면 3가지 특징을 모두 찾아 볼 수 있다(도 26). 즉 옥형은 여러 시점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뿐 아니라 부분도 자세히 그려 넣었으며, 각 지점에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우선 『태서수법』의 경우에는 측면과 정면 뿐 아니라 내부를 투과하여 보는 시점이 사용되었다. <옥형4도>를 보면 둑근 원통의 본체의 내부에 실린더와 관 등이 설치된 모습이 마치 유리통 드려다 보이듯이 그려져 있다. 둘째로 기기는 세부 부품과 완전한 기기 뿐 아니라 조립의 중간단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옥형3도>는 <옥형1도>와 <옥형2도>의 부품을 조립한 중간단계이며, 이것을 본체 안에 설치해야만 비로서 완전한 기기인 <옥형4도>의 모습이 된다. 이처럼 투과 시점과 조립과정이 삽입된 것은 『태서수법』이 기기의 제작과 작동을 염두해 둔 본격적인 기술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태서수법』에는 십간과 십이지 뿐 아니라 다른 기호도 보인다. 이는 황도 28星座의 ‘角亢氐房沈尾箕斗牛女虛危’인데 십간십이지로 모자라는 경우 星座를 기호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호에 대한 사용방법도 차이를 보이는데, 『정리의궤』의 기호가 부품 자체를 지칭하고 있다면 『태서수법』은 부품이 연결되는 지점에 기호를 표기하고 있다. 이는 『정리의궤』가 단순히 부품이 전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리키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였다면 『태서수법』은 부품이 조립되어 연결되는 지점과 작동시에 움직이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²⁾

으며, 정약용이 성역을 위해 거중기를 개발할 때 『기기도식』을 참고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박익수, 1994 「朝鮮時代 營建儀軌의 建築圖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형민·김영식, 2007 앞의 책, 172-186면.

- 30) 『태서수법』은 우르시스(Sabbathino de Ursis, 1575-1620)의 저작을 徐光啓(1562-1633)가 편집한 것으로 『農政全書』(1639) 제 19권에 포함되었다.
- 31) 문중양, 1994 「조선후기의 水車」, 『한국문화』 15, 261-343면. 이익이 『태서수법』을 읽었다는 연구는 李元淳, 1975 「朝鮮後期 實學者의 西學意識」, 『歷史教育』 17, 135-185면 참조.



〈도 26〉『泰西水法』, “玉衡”

4. 맷음말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정조대 유일하게 御定書로 편찬된 의궤이다. 이는 『정리의궤』가 기준 의궤의 제작 관행을 따르지 않고 특별한 체제와 기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전과 구분되는 『정리의궤』의 특징은 의궤가 관리자를 위한 실무적 기능 뿐 아니라 참석자에게 행사의 의의를 전파하는 홍보적인 기능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는 『정리의궤』의 편집과 출간방식- 행사의 전모를 종합하고 재구성하였으며, 활자로 대량 인쇄되어 배포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정리의궤』의 도식은 이러한 의궤의 새로운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궤의 문자 기록은 국왕의 전교에서 시작하여, 연설, 계사, 이문, 내관 등 문서 작성자의 위계나 담당 분과를 기준으로 한 기준의 편집 체제를 상당 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도식은 권수에 독립되어 본편과는 구별되는 자체적인 편집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의궤 도식의 가장 중심 되는 편집 원리는 도식을 행사와 행차로 나누고, 행사가 ‘계획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었다. 행사와 관계된 물건과

32) 이러한 『태서수법』의 기술도로서 발달된 특징은 『화성성역의궤』의 도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화성성역의궤』 도식과 중국 및 서양 기술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재빈, 2016 앞의 논문, 279-284면 참조.

복식, 공연에 대한 도식은 행사 장면 바로 뒤에 이어서 편집하여, 하나의 행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었다. 기존의 의궤들이 행사에 소용된 물건들을 각각의 담당 부서별로 나누어 편집한 것과는 다른 내용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리의궤』는 관리자의 시각에서 행사를 보고하고 정리하는 방식보다, 독자의 시각에서 행사를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리의궤』가 사용한 표현 방식은 행사의 기억에 시각적 사실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리의궤』에는 평행사선구도, 투시도법, 기술도법 등 새로운 도법이 시도되었다. 이들 새로운 도법은 행사 장면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뿐 아니라, 사용된 물건과 시설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의 의궤의 도식이 의물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쳤다면 『정리의궤』 도식은 실제 사용된 물건과 정확히 부합하고자 하였다. 도식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행사를 재구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리의궤』 도식은 이후 을묘년 원행에 대한 기억을 구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의궤와는 별도로 채색을 입힌 도식이 『정리의궤도』라는 책자로 제작되었다거나, 『정리의궤』를 하사받은 참가자가 도식에 대한 記文으로 원행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도식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과 의궤 도식의 감상화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논문투고일(2018. 4. 30), 심사일(2018. 5. 21), 게재확정일(2018. 6. 18)

참고문헌

1. 자료

- 『國朝五禮儀序例』〈奎184〉
 『[仁祖莊烈王后]嘉禮都監儀軌』〈奎 13061〉
 『農政全書』〈奎中 3236〉
 『大射禮儀軌』〈奎 14941〉
 『國朝續五禮儀序例』〈奎 1881〉
 『園幸乙卯整理儀軌』〈奎 14532〉(장철수·정승모 외, 1996 『역주 원행을묘정리의궤』,
 수원시)
 『內閣日曆』〈奎 26784〉
 『日省錄』〈奎 12811〉
 『古芸堂筆記』
 『弘齋全書』〈奎 572〉

2. 논저

- 김동욱, 2010 『영건의궤: 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 동녘.
 김문식, 2010 「『儀軌事目』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과정」, 『규장각』 37.
 _____, 2011 「1795년 정조의 화성 행차와 그 기록」, 『화성능행도병』, 용인대학교박물관.
 _____, 2015 「을묘년 정조의 수원 행차와 그 의의」, 『정조 8일간의 수원행차』, 수원
 화성박물관.
 김정임, 200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의궤 도식 목판」, 『古宮文化』 2.
 김종수, 2003 「奎章閣 所藏 연향 관련 儀軌 고찰」, 『한국학보』 29.
 _____, 1999 「장서각 소장 조선시대 궁중 연향악 문헌」, 『장서각』 1.
 _____, 2005 「규장각 소장 연향 관련 儀軌 고찰」,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지영, 2015 「1795년 整理通考의 편찬과 ‘整理’의 의미」, 『역사학보』 228, 215-248면.
 김춘연, 1984 「18世紀 宮中飲食考: 園行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2.
 문중양, 1994 「조선후기의 水車」, 『한국문화』 15.
 민길홍, 2015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와 《화성원행도병》 제작 양상」, 『정조, 8일간
 의 수원행차』, 수원화성박물관.

- 박은순, 2005 「조선후기 의궤의 관화도식」, 『국학연구』 6.
- 박익수, 1994 「朝鮮時代 營建儀軌의 建築圖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혜, 2000 『궁중기록화연구』, 일지사.
- _____, 2002 「華城城役儀軌」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93.
- 유봉학, 2001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 유송옥, 1986 「儀軌圖의 繪畫史的 特徵과 그에 나타난 宮中服飾」, 『服飾』 10.
- 신병주, 2002 「英祖代 大射禮의 실시와 『大射禮儀軌』」, 『한국학보』 28.
- 심승구, 2009 「朝鮮時代 大射禮의 設行과 政治·社會의 意味: 1743년(영조 19) 大射 禮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2.
- 옥영정, 2008 「한글본 『녕니의궤』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39.
- _____, 2015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간행과 인쇄문화적 가치」, 『(역주)원행을묘정리 의궤』, 수원화성박물관.
- _____, 2016 「『화성성역의궤』와 『녕니의궤』의 서지적 분석과 비교」, 『진단학보』 127.
- 유재빈, 2017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지도: 정조의 사도세자 추승 작업과 事蹟圖」, 『미술사학연구』 33.
- 이원순, 1975 「朝鮮後期 實學者의 西學意識」, 『歷史教育』 17.
- 이현진, 2013 「장현세자의 사당, 경모궁」, 『경모궁의궤』, 한국고전번역원.
- 정병모, 1989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板畫史의 研究」, 『문화재』 22.
-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 정형민·김영식, 2007 『조선후기의 기술도: 서양과학의 도입과 미술의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영우, 2005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령출판.

Abstract

Visual Strategy in the Royal Protocol: Illustrations in
Wonhaeng-ulmyo-jeongri-uigwe

Yoo, Jaebin

This paper analyzed the construction and style of the prints in the Wonhaeng-ulmyo-jeongri-uigwe (Royal Protocol concerning King Jeongjo's Visit to his Father's Tomb in Hwaseong in 1795) and examined the function of visual documentation in the Era of King Jeongjo(r. 1776-1800). The 56 pages of prints in Jeongri-uigwe could be divided into two parts, ceremony and procession. The ceremony part of the prints is composed of 9 scenes of events and the ritual materials that used in each ceremony; the procession part includes layout drawings of the palanquin and the pontoon bridge specially built for this procession and an array of two thousands of people and horses in the parade. This composition provides reader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eremony and procession. The prints of Jeongri-uigwe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is compil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aders whereas the previous prints in the royal protocols were edited by work units for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ors. Jeongri-uigwe's prints attempted new ways of drawing, such as parallel-diagonal composition, perspective method and technical drawing. Its naturalistic style helped the reader to recall the events in the more realistic way. The reader-friendly composition and realistic style of the prints influenced people to reconstruct the memory of this procession of King Jeongjo as a monumental event of the era.

Key words : Wonhaeng-ulmyo-jeongri-uigwe, uigwe, prints, diagram, king-authorized publication